집중호우 제대로 대처 못한 광주·전남 기상교육 받은 공무원 한 명도 없었다

최근 3년간 全無 '전국 유일'…경기 288명·경남 106명 대조
시 관계자 "의무 사항 아니고 타 기관서 재난교육 받아" 해명

광주시와 전남도에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 상황을 대비해 기상재해 전문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은 업무분장이 모호한 상태에서 교육 대상자를 찾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지만 '수마(水魔)'에 어려움을 겪은 상황인데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일한 행정이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기상청에서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광주·전남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이 주관하는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은 '기상법' 제 35조에 따른 것으로 기상정보를 이용해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교육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각종 기상정보를 기반으로 한 교통·산림·항공안전교육,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법, 호우·대설·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 대비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틀 간 진행된다.

교육을 이수한 지자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소속 공무원 288명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서 가장 많았고, 경남 106명, 경북 89명, 강원 81명, 서울 51명, 전북 33명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전남도와 22개 시·군에서는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은 전무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인 구리시에서만 47명이 교육을 이수했고 부여군도 25명의 담당 공무원이 교육을 이수한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기상청에서 주관하는 기상재해 전문교육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닌데다, 자연재해분야 담당자의 경우 타 기관에서 주관하는 재난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자연재해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해 기본적인 교육에 등한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한다.

광주·전남에는 지난 8월 최대 6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5000억여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피해가 컸다.

전문가들은 기상변화로 지자체 현장에서 초동대응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와 기상청의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철민 의원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재해대비·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적 기상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교육 이수자가 전무한 광주와 전남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타 지자체에 비해 유독 컸던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상재해는 국민들의 생명, 재산과 직결해 있는 문제인 만큼 초동대응이 성패를 가른다"며 "전문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악취 차단 은행 털기 광주 동구청 푸른도시과 녹지관리계 직원들이 5일 금남로에서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로수의 은행을 털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서구 '자살예방사업' 장관상 수상

광주시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자살예방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5일 서구에 따르면 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 실적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018년에 이어 두번째다.

서구는 자살예방 실행계획 3개 분야 ▲자살예방 환경 조성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자살예방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생명사랑 캠페인, 생명사랑 마을만들기,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현장 응급출동 등 3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서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강화해 자살률 감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신중년 자동차 검사 인력 양성' 사업
광주 남구 '전국 지자체 일자리 창출' 우수상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 2막 설계를 위해 선보인 '자동차 검사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올해 일자리 분야 우수 정책에 선정됐다.

남구는 5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최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우리 구청에서 추진한 '신중년 인생 2모작을 위한 자동차 검사 인력 양성' 사업이 우수상을 수상해 인센티브 재정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 인력 양성 사업이 일자리 분야 우수정책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9년 환경 문제와 관련해 대기관리권역 확대 지정 법안 제정되면서 검사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을 미리 예측한 판단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남구는 공개 모집을 통해 교육생 20명을 선발한 뒤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송원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맞춤형 인력 양성에 나섰다. 그 결과 전체 교육과정을 이수한 18명 가운데 14명이 신규 일자리를 찾는 등 취업률 대박의 진기록을 달성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학동의 시간을 걷다' 광주 동구 마을이야기 출간

재개발 등으로 사라질 마을의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다.

광주 동구는 학동4구역 지역주택재개발조합과 5일 '학동의 시간을 걷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동구의 인물', '충장로 오래된 가게'에 이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지역의 이야기를 전승할 세 번째 작품이다.

'학동의 시간을 걷다'는 한 터전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이웃, 마을 역사, 주민의 애환 등을 촘촘하게 담았다. 시간과 기억, 역사와 장소, 사람과 문화, 풍경과 삶터라는 4개의 주제로 구성했다. 홍림리라고 불렸던 학동의 역사적인 사건, 과거와 현재 모습을 망라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초등생 학습격차 해소" 광주교육청 대학생 보조 강사제 운영

11월 27일까지

광주교육청이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초등학생간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오는 11월27일까지 대학생 보조 강사제를 운영한다.

지난 2013년부터 시 교육청이 운영중인 대학생 보조 강사제는 광주교대 3학년 재학생들이 초등학교 기초학력 학습지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 맞춤형지원 사업이다.

예비 교사인 광주교대 3학년 재학생들은 지역 내 초등학교에 보조강사로 투입돼 담임교사와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 활동을 지원한다.

보조강사는 기초학력 학습지원 초등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취 동기를 북돋아 주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2학기에 51개교 144학급에서 336명의 대학생 보조강사가 주 2회 4시간씩 해당 초등학교에 출근해 학생들을 지원한다.

등교수업일인 경우에도 학생들과 대면하며 직접 지원한다. 원격수업일인 경우 담임교사와 원격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담당 학생의 원격수업을 돕는다.

김수강 광주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초등학생들의 학습 격차 해소에 대학생 보조강사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교원 성비위 71건 달해

최근 3년 각 45건·26건

최근 3년간 광주와 전남지역 교원들의 성비위 건수가 7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광주 지역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7년 8건, 2018년 2건, 2019년 31건, 올해 6월 현재 4건 등 총 45건 이었다. 전남은 2017년 10건, 2018년 4건, 2019년 9건, 올해 6월 현재 3건 등 총 26건 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633명의 교원이 성매매·성추행·성폭행·성희롱 등의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학교급(전국 기준) 별로는 초등학교 127건, 중학교 172건, 고등학교 324건, 교육청 등 3건, 특수학교 7건이며 설립 별로는 국공립이 342건, 사립이 291건이었다. 상대적으로 총 학교 수가 적은 사립학교가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유형별(전국 기준)로는 학생이 396건, 교직원이 133건, 일반인이 104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이었으며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감이 24건, 교사가 562건, 교장이 43건, 교육전문직이 4건 이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전남교육청 사업 성별영향 평가…성인지 감수성 향상 주력

전남교육청이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주력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교육청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정기회를 열고, 2020년 성별영향 평가 대상 사업 69개를 선정했다.

올해 성별영향평가는 지난 6월부터 1개월 동안 취합한 전남도교육청,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155개 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도 교육청은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11월 사이버 무역상담회
광주시 북구, 참여 중기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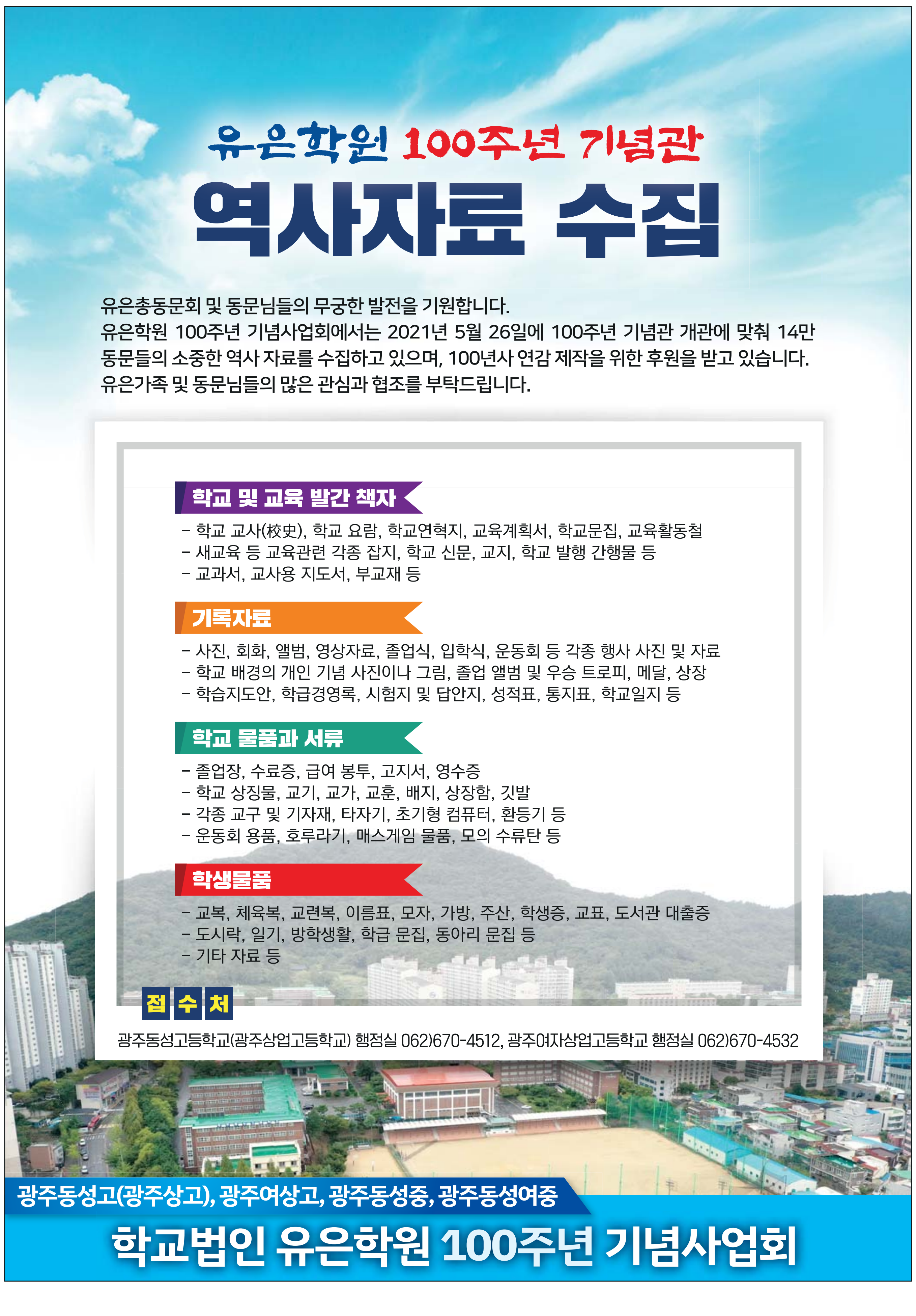
광주시 북구는 오는 11월에 열릴 '2020 사이버 무역상담회'에 참가할 지역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광주전남KOTRA지원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북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방문 제한 등으로 인해 당초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할 계획을 변경, 온라인을 통 한 화상 상담방식으로 변경했다.

상담회는 중국·동남아·대양주(호주·뉴질랜드)의 바이어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참가 기업에게는 바이어 매칭과 바이어에게 발송하는 샘플 물류비용(최대 30만원) 및 통역 등이 지원된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북구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중 업종 제한 없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7일까지 북구청 민생경제과 또는 광주전남KOTRA지원단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